

# 베트남공화국 응오 딘 지엠(Ngo Dinh Diem)정권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성과 한계

윤충로\*

- I. 머리말
- II. 지엠정권 이전의 이데올로기지형
- III. 지엠정권형성과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성
- IV. 지엠정권 지배이데올로기의 한계
- V. 맺음말

## I. 머리말

1945년 해방 이후 1975년 통일 이전까지 남·북이 서로 상이한 역사적 행로를 걸어온 베트남 현대사, 특히 남베트남의 현대사는 분단의 원인, 분단국가의 탄생과 발전, 전쟁이 국가형성에 미치는 영향, 국가형성에 있어서 외세의 개입이 지니는 효과 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한국과의 비교사적 측면에서 많은 지적 촉매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남베트남, 곧 베트남공화국에 대한 연구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혁명과 전쟁이라는 주제에 한정되고 있어,<sup>1)</sup> 베트남공화국 자체의 국가성격이나 특성, 정치·경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제·사회체제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영역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잊혀져 가는 베트남공화국을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는 계기를 제공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의 제1공화국인 이승만정권에 비견되는 응오 딘 지엠정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지엠정권 시기가 베트남공화국의 기본적인 국가틀을 규정짓고, 분단질서를 구축해 나간 시기이며, 당시 수립된 지배질서의 특성이 이후의 정권, 국가체제를 1차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1955년 10월 출범한 지엠정권은 초기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며, 1956년경이 되면 사회 통제력을 획득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958년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하고 불안정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지엠정권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었을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지배이데올로기의 사회적 확산과 내면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물리적 강제력은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상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장기적인 국가권력의 정치적 지배를 재생산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지배이데올로기의 구축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기든스는 “통치자가 행사하는 통제의 범위와 강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러한 통제는 추종자의 능동적인 복종에 의해서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지배자의 통제력이 종속자를 억압이라는 권력범위에만 의존하게 되는 사회제도일수록 그 사회 조직은 변혁적이거나 불안정으로 한층 떨어질 수밖에 없다”(Giddens 1993, 18)고 논한다. 곧, “국가는

1)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연구는 김기태(1982), 이기종(1991), 장재혁(1998), 정수용(2001), 홍규덕(1999), 혁명과 전쟁에 관한 연구는 강정구(1995; 1997), 리영희(1985), 전상인(2001)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과는 다른 방향에서 남베트남·한국의 국가형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군부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로는 Lee(1971)의 논문이 있다.

폭력을 정당화하고 정치권력의 관점에서 볼 때 피지배계급들과 분파들의 동의를 조직화하는 데 유용한 이데올로기에 직접적으로 의존”(Poulantzas 1999, 32)하게 되는 것이다.

지배이데올로기의 일반적인 기능은 “부분적인 이해를 보편적인 이해로 생각하는 것… 모순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것… 현재 존재하는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Giddens 1991, 261-263)이라 할 수 있다. 계급적 견지에서 보았을 때 지배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응집과 재생산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지배계급의 체제통합, 좀더 약한 테제로 이야기하자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배권에 체계적으로 도전하는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지 못하도록”(Callinicos 1997, 257)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지배이데올로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경우 국가의 정당성은 침식될 것이고, 국가권력의 불안정성은 증가할 것이다.

지배이데올로기의 구축과 사회적 확산·내면화는 지배계급의 정통성(legitimacy)이 빈약하고, 분단상황에서 북베트남과 서로 상이한 이데올로기구조 속에서 체제 경쟁을 수행해야 했던 남베트남에서는 매우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권 초기 내부의 반대세력을 제압한 이후 남베트남 정부에 필요했던 것은 정권의 정당화였고, 이를 위한 지엠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는 반봉건·반식민·반공주의였다. 그러나 지엠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는 체제의 정당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1958년 이후 나타난 정권의 불안정성은 바로 지배이데올로기의 사회적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엠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는 어떤 구조와 내용을 지니고 있었으며, 지배이데올로기의 사회적 침투력<sup>2)</sup>을 제약하고 체제

2) 이는 국가 강권력의 강·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만(Mann)은 국가권력을 강권력에 의지한 전제적 권력(despotic power)과 사회적 기반력(infrastructural power)으로 나누고 있는데(Mann 1999, 318-320), 전제적 권력에 해당하는 강권력의 발달이 곧, 개인의 미시적 일상생활을 제도적·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사회적 기반력의 강함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국가의 침투력은 바

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 요인은 무엇일까? 지엠정권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는 이념, 가치, 상징체계의 특성보다는 지배·피지배관계를 둘러싸고 그것이 생산,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정치·사회적 메커니즘과 조직화양식에 주목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 지엠정권 등장기의 주된 이데올로기지형을 외세인 프랑스·미국의 지배전략과 남부지역 민족주의세력의 정치·이데올로기지형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둘째, 지엠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정권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반봉건·반식민주의, 사회통제의 핵심기제라 할 수 있는 반공주의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엠정권 지배이데올로기의 사회적 확산과 침투를 제약했던 요인들을 전통의 유산, 전쟁의 영향, 종교적·지역적 요인을 통해 검토하겠다.

## II. 지엠정권 이전의 이데올로기지형

### 1. 프랑스·미국의 지배전략

1·2차 인도차이나전쟁의 1차적인 책임은 구식민지배국인 프랑스와 냉전에 입각하여 베트남에 개입한 미국에 있었다. 프랑스와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냉전에 입각한 체제방위전쟁으로 치환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세 차례의 변화과정을 보인다.

첫째, 프랑스의 식민주의전쟁(1945년 9월-1948년)

둘째, 식민주의와 냉전이데올로기의 접합(1949년-1954년 7월 제네바협정)

셋째, 미국의 직접 개입과 냉전에 입각한 도미논의 적용(1954년 7월 이후)

---

로 후자의 권력적 특성을 의미한다.

첫째, 프랑스는 인도차이나로의 복귀를 전혀 의심치 않았고, 심지어 식민주의가 아시아인에게 있었던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믿었다(Buttinger 1968, 211). 드골은 1944년 1월 브라자빌의 회의에서 “(식민지에서) 그 어떤 자치의 개념이나 프랑스권 밖의 그 어떤 발전의 가능성도 배제한다. 식민지에서 자치 달성은 설사 먼 장래의 일이라도 배제해야 한다”(Tuchman 1997, 26)라고 식민주의의 지속을 명확히 했다. 프랑스는 만일 베트남 전체를 지배할 수 없다면 남부 코친차이나만이라도 계속 프랑스령의 식민지로 유지하고자 했고, 이는 ‘남부 분리지배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와 ‘남부 분할 지배전략’을 통해 나타난다.

남부 분리지배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는 프랑스가 베트남에 재진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프랑스는 1946년 다랏(Dalat)에서 열린 회의에서 베트남의 남북은 지리적 단일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남부 코친차이나는 17세기까지도 베트남에 통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프랑스인의 지배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프랑스는 코친차이나인의 이익에 반대되는 베트남 문제의 해결은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McAlister 1969, 290). 남부 분리지배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에 기반을 둔 분할지배 전략은 2단계의 과정을 거쳤는데 1단계는 1946년 초부터 추진된 코친차이나 분리정부의 수립계획이며, 2단계는 1947년부터 수행된 ‘바오 다이(Bao Dai)를 통한 해결’<sup>3)</sup>이었다.

1단계 프랑스의 남부 분리정책은 프랑스군이 진주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되었다. 프랑스는 쩌 반 자우(Tran Van Giau)를 중심으로 한 남부행정위원회가 1945년 9월 23일 영·불군에 의해 사실상 해체된 상황에서 식민시대의 행정당국을 부활시켰으며, 1946년 ‘코친차이나 자문위원회’를 창설함으로써 남부 분리정책을 체제화했다. 이어 호찌민(Ho Chi Minh)의 베트남민주공화국과 체결한

3) 이는 프랑스가 바오 다이를 수반으로 하는 형식적인 정부를 세움으로써 식민 지배를 지속시키려는 전략이었다.

1946년 3월 예비협약에서 프랑스는 '코친차이나를 통합해 단일 국가로 할 것일지의 여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라는 조항을 통해 남부를 통일된 베트남의 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을 유보하였고, 1946년 6월 1일에는 응우옌 반 톤(Nguyen Van Thinh)을 대표로 하는 코친차이나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완전한 독립국가 수립의 좌절은 프랑스와 베트남의 전쟁을 불가피하게 했으며, 응우옌 반 톤의 체제로는 남부가 안정되지 않고, 식민주의를 희석시킬 수 없게 되자 프랑스는 구베트남의 황제인 '바오 다이'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바오 다이를 통한 해결의 진정한 목적은 베트남의 독립을 막는 것"(Buttinger 1968, 315) 이었고, 이는 또한 베트남 내에 자체의 정부를 세우라는 미국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Gravel ed. 1971, 57-75). 이러한 시도는 1948년 6월 5일의 '하롱만협정'을 거쳐 1949년 3월 8일 엘리제협정을 통해 달성되었다. 이로서 사이곤(Sai Gon)에 있는 부르주아지와 많은 반공주의집단, 곧, 가톨릭, 까오 다이(Cao Dai), 호아 하오(Hoa Hao) 등이 이 정부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고, 남부만의 형식적인 정부가 탄생했다(Duiker 1996, 144).

둘째, 프랑스는 식민주의전쟁을 냉전이데올로기와 접합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정당성을 획득하려 하였다. 이는 1951년 7월에 있었던 라튀르(Lattre)의 "프랑스의 관심은 ...자유세계를 위해 베트남을 구하는 것이다. 십자군운동 이후 프랑스가 이처럼 사심없는 행위에 착수해 본 적은 없다. 이 전쟁은 베트남인을 위한 베트남의 전쟁이다"(Buttinger 1968, 278)라는 언급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라튀르의 말에는 1944년 1월 드골이 브라자빌에서 보였던 식민주의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프랑스는 체제 수호의 십자군으로 다시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성격의 전환은 1947년 트루먼독트린과 마샬플랜을 통해 드러나는 냉전체제의 심화에 의한 것이다. 냉전이 심화됨에

따라 프랑스는 전후 소련에 대항한 유럽 방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유럽의 방위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는다는 명목 하에 지속적으로 프랑스를 지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9년 중국혁명의 승리와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 성공은 1차 인도차이나전쟁의 성격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1950년 1월 31일 소련과 중국이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승인하자 2월 1일 에치슨(Acheson)은 “소련과 중국의 호찌민 정부에 대한 인정은 호찌민이 목적으로 하는 민족주의의 본성에 대한 모든 환상을 제거했으며, 호찌민이 인도차이나 독립에 숙명적인 적으로서 자신의 진정한 색깔을 드러낸 것이다”(Archer 1971, 76)라고 논평하고, 2월 7일 바오 다이정부를 승인했다.<sup>4)</sup> 1950년 한 해 동안 미국은 인도차이나에 대한 공식적인 원조를 시작하고, 군사고문단을 파견했으며,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미국의 군사원조는 계속 증가했으며, 1954년에는 총 전비의 80%를 지출하여 전쟁의 미국화가 진행되었다. 1949년 이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프랑스의 식민주의와 미국의 냉전정책이 공존하는 시기였다. 미국은 이 시기 동안 인도차이나를 본격적으로 냉전적 가치에 의해 평가하기 시작했으며, 프랑스는 반공을 통해 식민주의 전쟁의 성격을 은폐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의지는 프랑스의 전세가 결정적으로 불리해진 1954년에 접어들면서 적극적으로 표명되기 시작했다. 덜레스(Dulles)는 1954년 5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남아시아에서 도미노 상황이 적용될 수 없는 여건을 창출하는 것이다. ... 우리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포기할 수 없다”(Williams etc., ed. 1985, 163)고 언급했다. 아이젠하워행정부는 베트남에 도미노이론을 적용하여 개입했으며, 이것은 남부에 독립된 정부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Gravel ed. 1971,

4) 도미노론에 입각한 인도차이나지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1950년 2월 27일 국가안보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잘 나타난다. Gravel ed.(1971, 361-362) 참조.

587-588).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베트남정책은 명백히 제네바협정을 부인하는 행위였다. 제네바협정의 6항은 “군사 경계선은 결코 계속적인 정치적 혹은 영토적 경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승인”하고 있었고, 7항은 “베트남 인민은 비밀투표에 의한 자유로운 총선거의 결과 수립될 민주적 제도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제자유를 향유해야 한다 … 국제위원회의 감독 하에 1956년 7월 자유선거가 시행될 것임”을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Aandahl ed. 1981, 1541).

“기묘하게도 제네바협정은 프랑스와 베트남민주공화국 사이의 1946년 3월 6일 협정의 복제였다. 베트남은 당시에도 두 지역으로 분단되어 있었으며, 국민투표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Sacks 1988, 283-284).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베트남의 통일독립국가 실현은 프랑스·미국의 남부 분리정책에 의해 실현될 수 없었다. 지엄정권의 탄생은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민주공화국과 분리된 또 하나의 국가를 수립하려 했던 프랑스·미국의 개입주의의 최종적 결과물이었다. 따라서 남베트남의 국가는 국가형성의 기반을 철저히 외부에 의존하였으며, 이러한 한계는 지엄에 의해 창출될 남베트남정부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하였다.

## 2. 남부지역 민족주의세력의 정치·이데올로기지형

1954년 제네바협정 당시의 이데올로기지형은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 좌파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영토적 지배력은 13도선 이남까지 미치고 있었으며, 정치적인 지도력은 전국을 포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45년 9월 2일 호찌민이 하노이에서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선포했을 때, 인도차이나공산당을 중핵으로 하고 베트남(Viet Minh)<sup>5)</sup>을 조직적 기반으로 하는 베트남의 혁

5) 베트남으로 약칭되는 이 조직의 본 명칭은 베트남독립동맹(Viet Nam Doc Lap Dong Minh)이다. 이것은 프랑스·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목적으로 하였

명적 좌파는 전국을 압도할 정도로 충분히 강했다고 볼 수 없었으며, 특히 남부에서 그러했다. 그렇다면 9년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쟁을 지도하고, 결국 디엔 비엔 푸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 혁명적 좌파의 성공의 열쇠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혁명적 좌파 자체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 곧, 첫째, ‘혁명적 좌파 이외에 민족의 독립을 향한 대중들의 저항적 민족주의의 열기를 조직화하고 발현시킬 통로는 없었는가?’, 둘째, ‘프랑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도된 남베트남 분리 독립국가의 건설은 왜 대안일 수 없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첫째, 해방 당시의 정치적 지형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베트남은 군소 민족주의세력, 종교세력, 좌파 트로츠키주의자, 찌 런(Cho Lon)을 중심으로 한 빈 수옌(Binh Xuyen)집단과 경쟁하고 있었다.<sup>6)</sup>

군소 민족주의세력은 대월(Dai Viet), 복국(Phuc Quoc), 베트남 국민당(Viet Nam Quoc Dan Dang), 베트남혁명동맹회(Viet Nam Cach Mang Dong Minh Hoi) 등의 세력을 들 수 있다. 이들 세력은 모두 민족의 독립을 희망했지만, 민족적 정통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대월과 복국세력은 1941년-1945년 일본의 인도차이나 점령 기간 동안 일본에 협력했으며, 베트남국민당과 혁명동맹회는 지나 치게 중국의 국민당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에서 해방 이후 베트남에게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후자의 두 세력이었다. 포츠담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부에 중국의 국민당군이 진주하면서 이들 세력은 실질적 동맹군을 얻게 되었으며, 베트남민주공화국 내에서의 정치적 지분을 요구하였다.<sup>7)</sup> 그러나 이들 세력 역시 1946년 2월

---

으며, 1941년 5월 인도차이나공산당 8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성을 결의했다.

6) 1945년 베트남민주공화국 수립 당시의 정치적 지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arr(1995)의 7장과 8장을 참조.

7) 실제로 1946년 1월에 실시된 총선거의 결과에 따라 사전에 호찌민의 혁명세

28일의 중불협정 결과 중국이 북베트남을 떠남으로써 실제적인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종교세력의 문제는 더욱 중요했다. 호찌민뿐만 아니라 이후 지엠에게도 주요한 경쟁세력이었던 남부의 토착 종교세력은 까오 다이(Cao Dai)와 호아 하오(Hoa Hao)였다. 두 집단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0년대 이후 일본과 협력하여 반프랑스 운동을 벌였다. 그 후 베트남과 연합전선을 형성하다가 다시 친불파로 돌아서게 된다.<sup>8)</sup> 사실 이들 종교세력의 정치적 유동성은 비군주제국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정치적 이론을 발전시킬 수 없었던 이데올로기적 한계, 효과적인 정치세력으로 그들을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의 부재, 과도하게 지방화되어 있었던 종교세력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었다(Smith 1968, 78, 152; Gravel ed. 1971, 47). 이러한 한계는 1955년까지 남부에서 호아 하오는 150만, 까오 다이는 100만의 신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946년 이후 친불세력으로 돌아서고, 이후 지엠과의 대결에서도 패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투쟁파와 국제공산주의동맹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이중에 특히 국제공산주의동맹은 베트남을 부르주아지들이 포함된 연합체라 비난하고, 주민을 무장하여 무장투쟁에 돌입하자고 대중들에게 호소했다. 이들 세력의 주장은 연합군의 진주에 따라 민족의 독립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했던 호찌민세력의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좌파적인 입장이었으며, 따라서 베트남에 의해 내부적으로 제거 당했다(Sacks 1988, 268-270).

빈 수엔집단은 강도와 해적 무리로 묘사되고 있으며, 베트남에게 커다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들은 해방 초기

---

력과 혐의된 바대로 베트남국민당은 50석, 혁명동맹회는 20석의 의석을 보장받았다(Sacks 1988, 274).

8) 물론 이들 세력 모두가 베트남에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의 종교·정치적 특성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Smith(1968, 71-78) 참조.

잠시 베트남을 지지하다가 1948년 베트남과 충돌한 이후 도박장, 매춘조직과 같은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프랑스를 지원하게 된다.

드빌레르(Devillers)는 1945년 이후 베트남의 정치지형을 보면서 “애국심은 결코 베트남의 독점물이 아니다. ... 프랑스가 일단 (베트남의 독립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취하면 베트남에서 새로운 세력과 당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Devillers 1950, 6-7)라고 논했다. 여기에서 애국적인 새로운 세력과 당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이후 프랑스에게 협조했던 다양한 남베트남의 정치세력이었다. 이러한 각 정치·종교·사회세력들의 특성은 그 반대급부로 존재했던 베트남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프랑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도된 남베트남 분리 독립 국가의 건설은 왜 대안일 수 없었는가?’라는 문제는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과 국가 핵심인물의 계급성, 그리고 실제 국가의 성격을 검토하면 쉽게 드러난다.

우선 프랑스에 의해 추대된 바오 다이를 포함한 국가의 수반들은 그들의 경력에서나 계급적 기반에서 새로운 국가를 이끌어 갈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1946년 3월 26일 남부임시공화국의 수상으로 선출된 응우옌 반 퐁을 비롯하여, 바오 다이가 베트남에 돌아 온 후 1950년 1월-5월까지 수상을 지낸 응우옌 판 롱(Nguyen Phan Long), 1953년 이후 지엠이 들어오기 전까지 수상을 지낸 응우옌 반 텡(Nguyen Van Tam), 이 모두가 지주세력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친프랑스 정당인 입헌당<sup>9)</sup>의 구성 인물들이었다. 이것은 1946년 3월-1954년까지 바오 다이와 그의 사촌인 브우 록(Buu Loc)을 제외한 6명의 수상 가운데 50%가 친 프랑스 지주세력을 대

9) 입헌당은 전혀 대중적 기반을 지니지 못했으며, 그들 스스로 그럴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다. 이들의 프로그램은 지극히 엘리트주의적이고,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었다. 또한 프랑스와의 관계에서도 베트남의 독립을 지향한다기보다는 프랑스에 협조적인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들은 완전히 프랑스화된 베트남인들이었다. 입헌당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Cook(1977)을 참조.

변한 인물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1947년 10월-1949년 7월  
까지 수상을 지낸 응우옌 반 쉐언(Nguyen Van Xuan)은 프랑스 군  
부출신으로 중장까지 승진하고, 제네바협정 이후 프랑스로 간 인물  
이었다. 남부정부의 인물들은 전혀 민족적이지도 대중적이지도 않  
았으며, 그 결과는 대중들과 유리된 그들만의 유명정부였다.<sup>10)</sup>

또한 프랑스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는 실제로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초기 남부임시공화국정부  
의 수반이었던 응우옌 반 틴의 경우 국가가 수립되고 초기 두 달 동  
안 내각을 수립할 수 없었고, 정부는 수상만 있었으며, 수상은 사무  
실도 없이 단지 개인 주택만을 받았을 뿐이었다(Tran Nam Tien  
2001, 163). 또한 바오 다이는 “그들이(프랑스인들이) 바오 다이에  
의한 해결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프랑스에 의한 해결임이 판명되었  
다. … 인도차이나의 상황은 날로 나빠지고 있다”(Gravel ed. 1971,  
59)고 고백함으로써 남부정부의 허구성을 보여 주었다. 1954년 중  
반까지도 프랑스는 주요한 정치적 통제권과 군사영역에 대한 통제  
권을 바오 다이정부에 이전하지 않았다(Scigliano 1964, 11). 따라서  
새로운 정부형성에 따른 베트남 내의 권력 이동은 없었다. 프랑스  
군은 여전히 베트남군을 통솔하고 있었고,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경제적 이익은 계속  
보호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태도와 분위기는 1946년 예  
비협약의 선거규정에 대한 식민주의자 바제(Baze)의 평가와 바오  
다이의 환국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통해 충분히 드러난다. 바제  
는 선거에 대해 “만약 지금 우리가 국민투표를 조직한다면, 인구의  
90%가 우리에게 반대할 것이다”<sup>11)</sup>라고 말했다. 또한 바오 다이가

10) 이에 반해 호찌민은 북베트남의 31명 당중앙위원들이 프랑스 감옥에서 복역  
한 햇수를 모두 합치면 222년이 된다고 밝혔다(Pike 1985, 145).

11) P. Devillers, *Histoire du Vietnam de 1940 a 1952 (History of Vietnam  
from 1940-1952)*, Paris: Seuil Publisher, 1952, p. 324; Binh Dinh

남부 분리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사이곤으로 들어오던 6월 13일, 바오 다이에 대한 거부는 사이곤-찌런의 시장 철수와 거리의 침묵으로 표현되었고, 바오 다이가 새롭게 창설될 군에 입대를 독려하기 위해 사이곤의 몇몇 학교에 들렀을 때 학생들은 책걸상으로 출입문을 막고, 프랑스 식민주의를 위한 괴뢰무리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며, 바오 다이에 대한 반대를 표시했다(Tran Nam Tien 2001, 171-172). 사실 이러한 사건은 전쟁과정에서 베트남인들이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민에게 보낸 지지와 헌신성에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사례들이다. '독립, 자유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호찌민의 말보다 당시 베트남인들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잘 반영하는 것은 없었으며, 식민주의와 반공주의는 베트남인들의 저항적 민족주의를 넘어설 수 없었다. 지엠정권은 바로 이러한 정치·이데올로기 지형 속에서 출발했다.

### III. 지엠정권형성과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성

지엠의 지배이데올로기는 반봉건·반식민주의, 반공주의라 할 수 있다. 우선 반봉건·반식민주의는 국가형성과정에서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안정을 위해 표방한 것으로 지엠정권 전체 기간을 관통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보기 어렵다. 반면 반공주의는 이데올로기와 물리적 억압이라는 이중기제의 접합을 통해 남베트남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핵심 지배이데올로기였다.

#### 1. 정권형성과정에서의 반봉건·반식민주의

지엠이 반봉건·반식민주의를 표방하게 된 것은 정치적·실질적인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첫째, 북부 호찌민정권에 대항

---

Thanh(1965, 96)에서 재인용.

한 남부정권의 민족적 정당화의 필요, 둘째, 정치적 위협요소의 제거이다.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요인이었다.

1954년 지엠이 베트남으로 돌아 왔을 때 그의 권력은 미약했다. 군권은 지엠에 대해 비우호적이며, 그를 대체하기로 결정한 친프랑스 집단이 통제하고 있었고, 사이곤과 쩌련의 핵심적인 경찰권은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갱집단인 빈 수엔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으며, 경제권은 프랑스인과 화인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Bouscaren 1965, 37). 또한 친프랑스적이며 사병을 거느리고 남부지방을 장악하고 있던 호아 하오, 까오 다이교파, '지엠에 의한 해결'보다는 '바오 다이에 의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프랑스의 존재는 지엠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에 호의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새로운 국가가 2년 이상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견해를 갖게 하였다(Buttinger 1959, 9).

사실 지엠에 대항한 정치집단들은 모두 프랑스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제거는 곧, 프랑스와의 대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지엠에게 위기의 시기였지만 다른 면에서 본다면 식민 지배에 따른 반봉건적 잔재·식민주의와 투쟁하는 호찌민과는 다른 반공주의적 민족주의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엠은 공공연히 지엠정권의 전복을 천명하던 친프랑스세력이며 베트남군의 참모총장이었던 응우옌 반 힌(Nguyen Van Hinh)을 제거했으며, 그 이후 까오 다이, 호아 하오, 빈 수엔 집단을 무력과 회유를 통해 무장 해제하고, 1956년 4월 호아 하오의 지도자 바 꼴(Ba Cut)의 마지막 무력 저항을 분쇄함으로써 '봉건주의의 종언'<sup>12)</sup>을 선언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사이곤군사사절단(Saigon Military Mission)의 랜스 데일은 응우옌 반 힌과 군벌세력에 맞서 비합법·반합법적인 조치

12) 봉건주의의 종언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석은 *The Times of Vietnam*(1956, 7, 14)을 참조.

들, 곧 군벌들을 회유하기 위한 뇌물제공, 지엠이 실각할 경우 원조를 단절할 것이라는 위협 등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반대세력을 축출하고, 나머지 군벌들을 지엠과 결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Post 1989, 221-226).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1954년 9월 8일 미국의 주도 하에 창설된 SEATO(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였다. SEATO는 남베트남에 안보우산을 제공함으로써 남베트남정부가 내부 문제를 다루는 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했던 것이다(Fall 1958, 242).

반봉건·반식민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상징을 통한 권력 장악의 정점은 사실 바오 다이의 축출이었다. 지엠은 1954년 6월 바오 다이에 의해 수상으로 임명되었으나, 양 자의 대외적 기반은 달랐다. 바오 다이는 친프랑스세력을 대표하고 있었던 반면, 지엠은 미국의 지원에 의지했다. 따라서 바오 다이의 제거는 구권력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권력을 조직하는 데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지엠은 1955년 10월 23일 바오 다이를 중심으로 한 군주제를 그대로 유지할지 혹은 지엠의 새로운 정부를 인정할지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엠세력은 투표를 앞두고 조직적인 선전작업에 착수했고, 이는 지속적인 정치 선전방송, 바오 다이를 ‘쾌락의 추구자’, 지엠을 ‘국가를 위한 경이로운 일꾼’으로 묘사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투표일 결정적으로 지엠과 바오 다이의 인상을 갈랐던 것은 투표용지의 모양이었는데, 지엠의 모습은 행운을 상징하는 붉은 바탕에 평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바오 다이는 불행을 상징하는 초록색 바탕에 황실 의상을 입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려졌다. 이것은 봉건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를 극단적으로 대비시킨 것이었다. 선거의 결과는 98.2%가 지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13) 투표결과 바오 다이의 폐위에 찬성 5,721,735표, 반대, 63,017표, 44,105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선거의 내용과 조직화 방식에 대한 내용들은 Fall(1968, 256-257); Harrison(1989, 213); Grant(1958, 439-440); Penniman(1972, 20-21) 등을 참조.

바오 다이의 축출 이후 남은 문제는 지엠에게 반대한 모든 세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프랑스였다. 반식민주의적 이미지는 프랑스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를 통해 확실히 부각되었다. 이는 프랑스를 경유하지 않는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 원조, 프랑스의 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지배관계의 청산이라는 요소를 통해 나타났다. 미국은 지엠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려 하였고, 이는 지엠의 이해와 일치했다. 1955년 9월 27-2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과 프랑스의 회의에서 프랑스는 1956년 1월부터 미국의 인도차이나에 대한 원조를 프랑스를 통하지 않고, 인도차이나로 직접 이루어질 것임을 밝혔으며, 이 협약이 끝나자 지엠은 프랑스연방에서 탈퇴했다. 또한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엠은 1956년 1월 19일 프랑스군의 주둔 연장협상에서 “아무리 그들이 친할지라도 외국군의 존재는 베트남의 완전한 독립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프랑스군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프랑스는 1956년 4월 26일 제네바협정의 공동의장이었던 영국과 소련에 프랑스군의 일방적 철수를 통보했다(Fall 1968, 318-319).

국가건설 초기 지엠이 표방했던 반봉건·반식민주의는 정권의 민족적 정당성을 입증할 기회일 수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개혁과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초기 권력 투쟁과정에서 정권의 기반을 잡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사의 성격을 넘어서지 못했다. 특히 농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반봉건주의의 핵심 사안인 농지개혁은 반(反)봉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토지개혁은 1949년 이래로 바오 다이정부가 약속해 오던 것이었고, 1953년 응우옌 반 땀(Nguyen Van Tam)수상은 정부가 농민의 토지구매를 위해 자금을 대어할 법령을 제정하기도 했다(Hammer 1955, 358). 지엠은 1955년 초 최대 지대를 25%로 고정하는 법률을 발표했고, 1956년 10월 22일 지엠 농지개혁의 핵심이라 일컬어지는 법령 57을 공포했다.<sup>14)</sup>

14) 실제로 1954년 10월 미국의 콜린스장군과 프랑스의 엘리장군은 지엠에게 농지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Post 1989, 243). 사실 이것은 지엠에게 하나의

이 법은 벼농지를 1가구당 100헥타르로 정하고 이 상한선을 넘는 토지는 몰수되어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유상으로 재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7년까지 지주들에게 몰수된 681,260 헥타르의 토지 중 단지 261,213헥타르만이 재분배되었으며(Paige 1995, 425), 1961년경 남부 경작지의 2/3가 여전히 규정된 25% 이상의 지대를 바치도록 강요받는 소작인들에 의해 경작되고 있었다(Harrison 1989, 184). 이러한 상황은 봉건주의의 척결이 지닌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또한 반식민주의의 중요한 척도인 식민잔재의 인적 청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959년 초 13,700명의 공무원 가운데 36% 정도가 프랑스 지배 하에서 공직을 수행하였으며, 14명의 각료 가운데 8명이 이전 식민행정, 혹은 보호국 행정 하에서 몸담았던 인물이었다(Scigliano 1964, 49). 더욱 중요한 사실은 프랑스인들이 떠난 자리를 메운 것이 베트남인들이 아니라 미국인들이었다는 점이다.

## 2. 사회통제의 핵심기제 : 반공주의

반공주의는 지엠정권의 성립과 존립의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제네바협정에 명시된 통일선거의 거부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 미국의 델레스나 아이젠하워는 모두 베트남에서의 선거는 호찌민의 승리로 끝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의 거부는 지엠정권의 생존을 위한 필연적 귀결이었고, 미국과 지엠은 이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지엠정권은 제네바협정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조약의 준수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피하려 하였고, 실제로 지엠은 “정부가 서명하지 않은 제네바협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속박되지 않는다”(Republic of Vietnam 1958, 32)고 밝혔다. 또한 델레스는 1955년 6월 20일 “미국은 만약 실제로

기회였다. 미국은 더 많은 원조를 위한 조건으로 효과적인 토지개혁을 주장하고 있었다(Harrison 1989, 184).

자유선거의 조건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어떠한 심각한 위협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는다”(Murti 1964, 183)고 밝혔고, 1958년 4월 26일 지엠 역시 베트남에서 선거를 치를 6가지 조건 가운데에서 북베트남이 남부와 유사한 민주적 자유를 세운다는 조건 하에서만 선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사실상 북베트남 정권이 존재하는 한 선거는 치러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건설 초기 지엠이 반공정권을 세우기 위해 추진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는 피난민계획이었다. 피난민계획은 정전 후 300일 이내에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베트남군사정전협정’ 2조와 제네바 최종협정 6항에 의거한 것이었다. 미국은 수송기와 수송선을 동원하여 북부인의 남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Gravelled. 1971, 576-577). 거의 90만에 이르는 피난민 중에서 544,000명 정도가 가톨릭교도들이었다.<sup>15)</sup> 이들은 미국의 막강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남부에 실질적 지지기반이 없었던 지엠정권의 토대가 되었다. 피난민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많은 유태인력은 격렬한 반공주의자로서 정보국, 공직, 농촌활동팀 등으로 흡수되었고 지엠정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며, 선전도구로 기능하였다.

반공주의에 기반하여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보장하고 있었던 제네바협정을 거부한 것과 대대적인 피난민운동을 통한 정권의 기반구축은 이후 8년여에 걸친 지엠통치의 기본방향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통일보다는 남부정권의 공고화를 우선시했던 반통일적 행보와 더불어 지엠정권의 정당성을 침식해 들어갔던 것은 반공과 안보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던, 반민주성과 폭력성이었다. 이

15) 종교적 요인에 의해 남하를 한 가톨릭교도들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대대적인 남하에는 미국의 심리전과 물리적 위협 또한 작용하고 있었다. 지엠정권과 미국은 가톨릭교도를 남하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와 동정녀 마리아가 남하했다’는 심리전을 펼쳤고(Post 1989, 232),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으로 북부지역에 대한 원폭계획을 유포함으로써 피난민의 남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Kahin & Lewis 1969, 74; Manhattan, 1984).

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떠한 비판이나 반대도 허락하지 않는 일원화된 정치구조의 건설, 농촌재조직화사업, 강권력을 통한 직접적인 반공캠페인과 악법에 바탕한 물리적 통제라 할 수 있다.

첫째, 지엠 통치구조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가족통치’(Gia dinh tri)였고, 남부의 정치·경제·군사적인 모든 권한은 지엠의 형제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지엠은 대통령, 국방부장관, 군총사령관을 겸했으며, 동생인 응오 딘 뉴(Ngo Dinh Nhu)는 실질적인 권력의 핵심으로 지엠의 고문역할을 담당했고, 뉴 밑의 동생 응오 딘 켄(Ngo Dinh Can)은 중부지방의 맹주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뉴의 부인이었던 켄 레 수언은 국회의원이었으며, 수출입 허가권을 쥐고 있었고, 개인·정부기업의 많은 주식과 대규모의 개간지를 소유했다(Nguyen Cong Binh 1961, 27).

지엠의 형제들은 권력을 조직화하고, 사회적으로 침투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뉴는 지엠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부서인 ‘정치사회연구소’(So Nghien Cuu Xa Hoi Chinh Tri)를 운영했다. 이는 정치·사회·경제 및 공직자의 개인신상부터 각계 인물 동정 등 모든 분야의 정보를 수집·분석 관할했다. 또한 뉴는 1954년 9월 엘리트정당인 ‘근로인적혁명당’(Can Lao Nhan Vi Cach Mang Dang)을 창설하였다. 이 당은 정부의 측근들로 구성되었으며, 정치조직 내에서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했다.

켄은 지엠정권의 대중당 역할을 수행한 ‘국가혁명운동’(Phong Trao Cach Mang Quoc Gia)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 당은 공식적인 행정조직을 통해 반공선전을 담당했다. 지방행정체의 장은 대개 ‘국가혁명운동’의 구성원이었고, 대통령령에 의해 마을의 정치위원을 겸함으로써 상부의 정치적 이해를 직접적으로 하부 행정단위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국가혁명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국가혁명공무원연맹’(Lien Doan Cong Chuc Cach Mang Quoc Gia)<sup>16)</sup>을 들 수 있다. 이 조직은 고위행정

관리가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공무원들 사이에서 반공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정례적 회의를 조직했다. 조직적 영향력으로는 오히려 '국가혁명운동'을 능가했다. 쩌 레 쉘언의 경우 주로 국가혁명공무원연맹의 부인들로 구성된 '부녀연대운동'(Phong Trao Lien Doi Phu Nu)과 그들의 딸로 조직된 '부녀군사위원회조직'(To Chuc Ban Quan Su Phu Nu)을 이끌었다(Duncanson 1968, 232).

이같은 정치적 구조화는 지엄을 중심으로 한 1당을 제외한 제도권 내의 대립적 정치조직의 형성을 용납하지 않았다. 식민지적 유제와 결합되어 있었던 군소정당은 지엄정부에 대립하면서도,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했기 때문에 저항의 한계가 명확했다.<sup>17)</sup> 언론의 경우 역시 정부는 출판권과 신문 인쇄를 통제했으며, 신문의 배분은 경찰청장이 대표로 있는 재향군인회에서 독점했다. 이러한 체제는 1956년 2월 20일의 대통령령에 의한 언론규제법을 거쳐 더 정교화되었다(Post 1989, 40). 정부는 '정보·출판총국'을 통해 매일·매주의 편집방향을 지도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공식적 방침 이외의 언로는 만들어질 수 없었다(Scigliano 1964, 174-175).

둘째, 농촌재조직화사업은 크게 '상호부조가족집단'(Lien Gia Tuong Tro)과 밀집구역·밀집촌<sup>18)</sup>의 뒤를 잇는 전략촌(Ap chien luoc) 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상호부조가족집단은 대개 5-7가

16) 이 조직은 쩌의 영향력이 강했던 중부 이외의 지역에서는 뉴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Scigliano 1960).

17) 이러한 정당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Scigliano(1960, 1964) 참조.

18) 밀집구역(Khu tru mat)은 보통 한 구역이 400가족 정도로 구성되고, 그 주위로 약 120가족으로 구성되는 400개 정도의 밀집촌(Ap tru mat)을 건설하는 것이다(Scigliano 1964, 179). 이러한 마을은 인구의 재배치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가족들이 자력으로 일하여 마을을 건설하며, 국가는 토지 개발과 개선작업에 기술적 도움을 제공한다(Haldar 1961, xiii). 그러나 문제는 인구의 재배치가 농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도로나 공공시설의 건설에 노동력이 무상으로 징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농민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고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내걸었으나, 이는 오히려 정부가 과거 적성지역으로 분류했던 곳에 농민들을 정착시켜 지역안보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안보계획과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족이 하나의 가족집단(lien gia)을 이루며, 정부의 선전에 의하면 각 가족이 상호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자발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마을 단위의 보안세포로 안보조직의 역할을 수행했다(Donnell 1961, 52; Scigliano 1964, 169-170).

전략촌의 개념은 밀집촌에 비해 훨씬 반공·지역안보의 개념에 접근한 농촌전략이었다. 밀집촌이 주민들을 이주시켜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는 것이었다면, 전략촌은 기존의 마을을 요새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따라서 정부의 통제가 강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전략촌이 건설되었으며, 정부 통제의 정도에 따라 안정적인 지역과 불안정한 지역을 분류하였다. 일단 불안정한 지역으로 분류되면 그 지역은 파괴되었으며, 마을 주민들은 안정적인 지역으로 옮겨졌다. 이러한 정책은 살상지역(kill zone)의 형성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하였다(Scigliano 1964, 180-181). 또한 이같은 농촌전략은 지역행정의 군사화를 부추겼다. 1958년 36개의 성 가운데 13개의 성을 군장교가 통제하고 있었는데, 1960년 9월에는 21개의 성을 군장교가, 17개의 성을 일반인이 통제했고, 1962년 8월에 이르러서는 41개 성 중에서 군장교가 36개 성을 통제하고, 일반인이 5개 성을 통제하게 되었다(Scigliano 1964, 166).

셋째, 지엠정권은 초기부터 정치적 안정을 목적으로 강력한 반공정책을 펼쳤는데, 초기 대중동원을 통한 반공캠페인의 대표적인 예는 '반공선언운동'(Anti-Communist Denunciation Campaign)이다. 이것은 북부의 호찌민정권에 반대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고무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한 내용은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를 맹세하는 것, 베트남의 잔악함을 열거하고, 지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 등으로 채워졌다. 이 운동을 이끌었던 쩌 짜인 타인(Tran Chanh Thanh)은 1955년 중반부터 1966년 5월까지의 기간을 볼 때 이 운동이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베트남세력이 붕괴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운동의 성과는 응오 딘 쩌이 지배하던

중부지방에 집중되었고, 그나마 실제 베트남세력이 그 운동에 참여 했는지도 의심스러운 것이었다(Post 1989, 237).

이러한 반공캠페인은 1954년부터 이미 실행되고 있었던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재교육캠프와 결합되어 있었다. 1954년-1956년까지 15,000-20,000명의 공산주의자와 적극적인 동조자가 정치재교육 센터에 보내졌으며, 1957년경에는 정치범의 수가 7만-8만을 헤아리게 되었다(Post 1989, 240). 북베트남의 논의에 의하면, 지엠 통치 6년 동안 16만의 사람이 죽거나 부상당했으며, 24만이 넘는 사람이 감옥과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다고 한다(Nguyen Cong Binh 1961, 23).

이러한 폭압적인 상황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령에 근거한 것이었다. 지엠은 1956년 1월 '질서와 안보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국가 방위와 공공질서에 위협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택 연금하거나 수감할 수 있다'는 법령 6호를 발표했고, 이를 확대하여 1959년 발표한 10/59법의 1조는 '국가안보를 파괴 혹은 침해하려는 목적을 지닌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그에 대한 기도는 사형에 처해진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10/59법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군사법정에서는 판결에 대한 피고인측의 변론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Kahin & Lewis 1969, 100-102). 또한 지엠은 1961년 10월 18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1962년 5월 16일 10/62법을 공포하여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합, 집회, 심지어 가족의 친목회마저도 사전에 경찰의 허가를 받게끔 하였다. 10/59법은 1962년 11/62 법으로 더욱 강화되어 '최전선군사법정'(Front-Line Military Tribunals)이 세워졌다(Fall 1968, 267). 시글리아노는 지엠정권의 정치체제를 평가하면서, "프랑스 치하에서 보다 현재의 베트남이 정치적 자유가 덜 주어지는 것 같다"(Scigliano, 1964: 98)고 논의했다. 이러한 평가는 반공·안보주의에 의해 운영되는 지엠정권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IV. 지엠정권 지배이데올로기의 한계

“정치조직체는 비록 부분적인 정당성이라도 획득하게 되면 언제나 그만큼 더 안정을 얻는다”(Wallerstein 1999, 221). 지엠의 체제는 초기에는 비록 미약했으나, 미국의 막강한 지원에 힘입어 경쟁세력을 제거하고, 1956년경이 되면 사회에 대한 물리적 통제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또한 초기 반봉건·반식민주의는 한계를 지니기는 했으나 민족적 정당성의 선전을 통해 지엠정권에 대한 부분적인 동의를 형성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1959년 남부의 상황은 이러한 초기의 성공을 무색케 한다. 1956년 이후 진행되던 산발적인 무력저항은 1959년을 기점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무력저항의 확산은 물론 10/59법령에 대한 반발에 기인한바 크다. 1960년 12월 20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되었으며, 더 나아가 1962년 1월 1일에는 1969년 6월 10일 만들어진 임시혁명정부의 모태가 된 인민혁명당이 만들어졌다. 당시 지엠정권은 틸리가 혁명적 상황의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와 유사하게 국가 전체 또는 일부의 지배권에 대해 배타적이고 상처되는 주장을 내세우는 도전자들 또는 이들 간의 제휴세력에 의해 포위당해 있었으며, 그 주장들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시민층의 동요를 막지 못했고, 대안적 제휴 그리고/또는 그 주장에 맞서 이를 저지할 통치역량 또한 부족했다(Tilly 2000, 39). 이는 지엠정권이 1959년 이후 본격적인 혁명적 상황에 돌입했으며, 지엠정권에 의해 표방된 지배이데올로기의 사회적 침투·확산의 실패, 특히 사회통제의 핵심기제였던 반공이데올로기의 사회적 내면화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지엠정권은 반공을 중심으로 한 지배이데올로기의 사회적 내면화에 실패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제약했던 요인들은 무엇인가? 아래의 논의에서는 이를 전통의 유산, 전쟁의 영향, 종교·지역적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하겠다.

첫째, 전통의 유산에서 지배이데올로기의 사회적 확산을 가로막았던 주요한 요인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왕의 권력도 마을 입구에서는 멈추었다'는 베트남의 속담과 같이 마을은 강한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프랑스도 마을에 대한 통치는 전통적인 통치방식을 따랐다. 물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마을의 자율적 구조를 결정적으로 파괴하지는 못했다(Nguyen Ngoc Luu 1987, 98-123). 프랑스의 직접적인 행정적 지배는 성(省) 단위에서 멈췄으며, 그 아래 부(府) 사(社)는 모두 봉건지주계급이나 구통치조직을 활용했다(송정남 2000, 502-503). 프랑스의 농촌 마을에 대한 지배는 결코 안정적이지도, 치밀하지도 못했다.<sup>19)</sup>

이러한 전통과 식민지배의 유산 하에서 지엠은 중앙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1956년 7월 프랑스지배 하에서 만들어졌던 농촌의 마을위원회선거를 폐지하였고, 그 장을 직접 임명함으로써 중앙 권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마을의 장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선전하고, 중앙의 정책을 마을에 전달하며, 공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공공업무는 성과 현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마을로 내려가지 못했다. 촌락 단위의 안정화를 위해 지엠은 1차 인도차이나 전쟁 기간동안 프랑스의 보조군사조직으로 활동했던 마을 단위의 시민자위대(Civil Guard)와 자위군(Self-Defence Corps)을 활용했는데, 이들 조직은 1959년 이후 미국의 전격적인 지원을 받기 이전까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반공·안보주의에 의해 행해졌던 전략촌계획은 중앙권력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지엠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주민들의 미시적 생활공간을 통제하는 권력을 발달시켜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웅오 딘 뉴는 1962년 여름 3,225개 전략촌에 4백 3십만의 농민을 수용했다고 주장했지만(Olson & Roberts 1991, 96),

19) 하나의 예로 프랑스의 베트남 촌락에 대한 개혁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고, 마을 단위의 인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Nguyen Ngoc Luu(1987, 109) 참조.

이는 2년도 되기 전에 80%가 파괴되었다. 지엠은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지역을 통제할 수 없었으며, 이것은 지엠정권 지배이데올로기의 사회적 침투범위를 제한했다.

둘째, 전쟁의 결과는 지배체제의 자기 정당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전쟁기간 동안 사람들은 이미 권력을 지닌 정권에 의해 동원되었다. 툴리의 논의대로 전쟁이 성공할 경우 국가체제는 강화되고, 정권은 안정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 “전쟁의 패배는 지배체제를 부정하는 — 내적인 제재를 가하는 지배권력과 그것의 억압기구를 심대하게 약화시키는 — 가장 잔혹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것이다”(Therborn 1997, 158). 1차 인도차이나전쟁에서 호찌민의 승리는 좌·우이념 대립의 강화가 아니라, 좌파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켰다. 지엠의 지배이데올로기 확산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전쟁기간 동안 농민들이 베트남 세력에 동조하여, 그들에 의한 동원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었다. 지엠에 대항한 혁명세력들은 “지금의 투쟁을 전에 있었던 항불운동 당시의 국민적 투쟁과 동일시”(Maclear 2002, 115)하는 ‘재생에 의한 동원’<sup>20)</sup>을 추구했다. 이것은 지엠과 혁명세력의 대립을 반공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아닌 식민세력 대 민족주의세력의 대립으로 형상화하는 것이었다.

셋째, 종교·지역적 요인은 남베트남의 사회적 갈등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종교적 특성은 “조직화된 종교들이 국가와 연관되어 있는 방식”(Rueschemeyer etc. 1997, 130)의 차이에 따라 지배이데올로기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지역적 요인 또한 그것이 권력구조 내에서 지닌 효과와 사회적 권력배분의 측면에서 지배이데올로기의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 보아 종교·지역적 요인은 지엠의 족벌주의(nepotism)와 결합하여,

20) 과거 즉 존재해오는 것, 과거의 경험, 가치, 상징 등을 기반으로 하여 동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혁명적 요소와 반혁명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Therborn 1997, 159).

지배계급 내에서는 지배계급 동맹구조의 협애화, 남부의 피지배계급에 대해서는 자신들과 유리된 섬과 같은 존재로 지엠정권을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우선 지배계급의 경우 고위공직자들을 살펴보면, 지역적·종교적 편애가 나타난다. 지엠의 최초 내각에는 남부인이 없었고, 1955년 10월 공화국 선포 이후 창출된 내각에는 남부인 7명, 북부인 4명, 중부인 4명이 임명되었다. 내각 아래의 중상위직은 비남부인들이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상위 행정직 186명의 공직자 중 남부인은 67명이었고, 57명은 북부인, 62명은 중부인이었다. 1960년을 기준으로 17도선 이남의 중부지방에는 500만, 남부에는 900만이 살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적 편중은 매우 큰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지역적 요인은 종교적 요인과의 결합했는데, 1960년 베트남공화국의 가톨릭교도는 약 1,014,000명으로 인구의 7%정도를 점했는데, 비공식적 조사로는 제1국회의 123명 중 22-27% 정도가 가톨릭교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엠정권이 지역적으로는 중부, 종교적으로는 가톨릭에 기반을 둔 정권으로 비취지도록 하였다(Scigliano 1964, 52-55). 정권의 종교·지역적 편애와 더불어 친족 중심의 국정 운영은 남부 지배층의 상대적 소외를 낳았으며, 권력블록의 협애화를 초래했던 것이다.

피지배계급과 지엠정권의 유리는 더욱 심각했다. 북부의 피난민들이 남부로 흡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군사적 업무나, 정보부서에 배속되어 반공의 첨병이 되었다. 이것은 남부인들의 북부인에 대한 적대감을 증폭시켰다. 한 예로 지엠정권의 초기 농촌전략 가운데 농민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민사활동(Civic Action)<sup>21)</sup>

21) 민사활동은 전쟁에 의해 파괴된 마을을 재건하는 1955년 공동체 활동계획(Community-action program)에 기초하여 발전하였다. 작은 팀으로 구성된 1,400명 정도의 인원이 활동했으며, 주로 농민들과 함께 기거하며 농촌활동에 종사했다. 초기 민사활동은 농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던 중요한 농촌 프로그램이었으나, 정부 부서간의 알력으로 인해 1956년 말경부터 활동이 줄어들게 된다(Scigliano 1964; Montgomery 1962, 70-71).

에 대해 “계획의 수혜를 입는 마을 사람들조차도 때때로 팀의 방문에 분개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발음을 구사하고, 상이한 종교를 믿는 이방인이었던 피난민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Montgomery 1962, 71). 특히 1963년 석가탄신일에 불교도의 깃발을 게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촉발된 불교도의 시위, 6월 11일 승려 틱 팡 득(Thich Quang Duc)의 분신과 지속적인 저항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뉴의 지휘에 의해 펼쳐진 8월 초 사이곤 싸 리이(Xa Loi)사찰에 대한 침탈은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도인 베트남 민중의 기본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지엠과 뉴는 종교적 문제를 반공·안보라는 입장에서 대처했으며, 정치적으로 접근했다. 지엠과 뉴의 주장대로 이러한 시위가 공산주의자에 의해 조종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탄압은 종교적 적대선을 더욱 선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 V. 맺음말

전체적으로 보아 지엠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는 반식민·반봉건·반공주의의 혼합물이었다. 그렇지만 지엠정권 지배이데올로기의 전체적인 방향과 틀을 규정했던 것은 반공주의였다.

정권 초기에 강조된 반봉건·반식민주의는 지배층에 대한 통제와 피지배층에 대한 정당화라는 이중의 목적을 지녔다. 초기에 이러한 목적은 모두 성공적인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지엠은 반봉건주의를 앞세워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정작 사회·경제적 반봉건주의의 핵심이었던 농지개혁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반식민주의는 미국에 의존한 정권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희석되었다.

반봉건·반식민주의 사실 반공주의가 지닌 폭력성을 은폐할 하위이데올로기로 기능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은 지극히 제한

적이었다. 점증하는 저항에 의해 지엠은 반공주의에 입각한 사회통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폭력은 노골화되었다. 그러나 노골화된 폭력이 곧, 지배이데올로기의 사회적 침투와 확산을 제약한다고는 볼 수 없다. 지엠정권 지배이데올로기의 사회적 확산과 침투를 제약했던 요인들은 보다 근본적인 데에 있었다. 그것은 우선 베트남 전통사회의 특성에 의해 제약받았다. 전통적으로 베트남의 중앙권력은 지방 침투에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이것은 지엠정권 지배이데올로기의 사회적 침투·확산의 범위와 영역을 제한했다. 그리고 1차 인도차이나전쟁의 결과는 좌파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대중동원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인 종족·종교문제는 지엠정권 지배블록의 제한성과 중앙정부와 피지배층의 이질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지엠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지닌 특성과 한계를 밝히고 왜 지엠정권의 체제가 안정될 수 없었는가를 규명하였다. 지엠의 지배이데올로기는 정권의 정당화를 위한 외피를 제공할 수 없었으며, 이는 결국 정권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켰던 것이다. 필자는 이같은 개별사례연구가 유사한 출발을 보이고 냉전시대 반공의 침병으로서 운명을 같이했던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보다 진전된 남베트남과 한국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는 이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강정구. 1995. “베트남의 분단과 미국의 역할”.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4호.
- . 1997.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4호.
- 김기태. 1982.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과 한미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리영희. 1985. 『베트남전쟁』. 서울: 두레.
- 송정남. 2000. 『베트남의 역사』.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 이기종. 1991. “한국군 베트남참전의 결정요인과 결과 연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 장재혁. 1998. “제3공화국의 베트남 파병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 전상인. 2001. “세계체제 속의 혁명과 전쟁”. 『고개 숙인 수정주의: 한국 현대사의 역사사회학』. 서울: 전통과 현대.
- 정수용. 2001.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과 한·미 동맹체제의 변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 홍규덕. 1999. “베트남전 참전 결정과정과 그 영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대외관계와 남북문제』. 서울: 백산.
- Aandahl, Fredrick ed. 198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 xvi.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Archer, Jules. 1971. *Ho Chi Minh: Legend of Hanoi*. New York: Crowell-Collier Press.
- Binh Dinh Thanh. 1965. “The First Year of Resistance in South Vietnam 1945-1946”. *Vietnamese Studies*, No. 7
- Bouscaren, Anthony Trawick. 1965. *The Last of the Mandarins : Diem of Vietnam*.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 Buttinger, Joseph. 1968. *Vietnam: A Political Histor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Publishers.

- \_\_\_\_\_. 1959. "The Miracle of Vietnam". Lindholm. Richard W. ed.  
*Vietnam: The First Five Years*. Wadsworth: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 Callinicos, Alex. 1997. 김용하 역. 『역사와 행위』. 사회비평사.
- Cook, Megan. 1977. *The Constitutionalist Party in Cochinchina: The  
 Years of Decline, 1930-1942*. Clayton · Victoria · Australia:  
 Centre of Southeast Asian Studies, Monash University.
- Devillers, Philippe. 1950. *Vietnam and France: Franch Paper No. 1*.  
 New York: International Secretariat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 Donnell, Jonh C. 1961. "Personalism in Vietnam". Fishel ed.,  
*Problems of Freedom: South Vietnam since Independence*,  
 New York: Free Press.
- Duiker, William J. 1996. *The Communist Road to Power in Vietnam*.  
 Boulder: Westview Press.
- Duncanson, Denis J. 1968. *Government and Revolution in Vietnam*.  
 Lond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all, Bernard. 1958. "South Vietnam's Internal Problems". *Pacific  
 Affairs*, vol. 31.
- \_\_\_\_\_. 1968. *The Two Vietnams: A Political and Military Analysi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 Giddens, Anthony. 1991. 윤병철 · 박병래 역. 『사회이론의 주요쟁점』.  
 문예출판사.
- \_\_\_\_\_. 1993. 진덕규 역. 『민족국가와 폭력』. 서울: 삼지원.
- Grant, J. A. C. 1958. "The Vietnam Constitution of 195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2.
- Gravel, Mike ed. 1971. *The Pentagon Papers I*. Boston: Beacon  
 Press.
- Haldar, M. K. 1961. *Asia: Challenge at Down-Personalism and  
 Marxism*. New Delhi: Siddharta Publication.

- Hammer, Ellen. 1955. *The Struggle for Indochina 1940-195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rrison, James P., 1989. *The Endless War: Vietnam's Struggle for Independe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ahin, George McTurnan & Lewis, John W. 1969, *The United States in Vietnam*. New York: A Delta Book.
- Lee, Eun Ho. 1971. "The Role of the Military in Nation-Building: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Vietnam". Ph. D. Dissert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McAlister, John T. 1969. *Vietnam: The Origins of Revolution*. New York: Alfred A. Knopf.
- Maclear, Michael. 2002. 유경찬 옮김. 『베트남: 10.000일간의 전쟁』, 서울: 을유문화사.
- Manhattan, Avoro. 1984. *Vietnam : Why did we go?*, U.S.A: Chick.
- Mann, Michael. 1999. "The Autonomous Power of the State: Its Origins Mechanism and Results". Walters, Malcolm ed., *Modernity: Critical Concept*, vol. 3. London&New York: Routledge.
- Marr, David G. 1995. *Vietnam 1945 : The Quest for Power*.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ontgomery, John. D. 1962. *The Politics of Foreign Aid: American Experience in Southeast Asia*.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 Murti, B. S. N. 1964. *Vietnam Divided : The Unfinished Struggle*. Lucknow · London · New York: Asia Publishing House.
- Nguyen Cong Binh. 1961. Ban ve ban chat che do doc tai, Phat-xit, gia dinh tri Ngo Dinh Diem voi nhung mau thuan be tac cua no. *Nghien cuu lich su*, so. 22(응오 딘 지엠의 몇 가지 교착된 모순과 더불어 독재, 파시스트, 가족통치제도의 본질에 관해 논함).
- Nguyen Ngoc Luu. 1987. "Peasants, Party and Revolution: The

- Politics of Agrarian Transformation in Northern Vietnam, 1930-1975".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Van Amsterdam.
- Olson, James & Roberts, Randy. 1991. *Were the Domino Fell: America and Vietnam, 1945-1990*. New York: St. Martin's Press.
- Paige, Jeffery M. 1995. 강문구 외 역. 『농민혁명』. 서울: 서울프레스.
- Penniman, Howard R. 1972. *Elections in South Vietnam*, Washingt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Pike, Douglas. 1985. 편집부 역. 『베트남 공산주의운동사 연구』. 서울: 녹두.
- Post, Ken. 1989. *Revolution,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Vietnam, vol. 1*. U.S.A: Darmouth.
- Poulantzas, Nicos. 1999. 박병영 역. 『국가·권력·사회주의』. 백의.
- Republic of Vietnam. 1958. *The Problem of Reunification of Vietnam*. Saigon: The Ministry of Information.
- Reueschemeyer, Dietrich. etc. 1997. 박명립 외 역.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비교역사 연구』. 서울: 나남.
- Sacks, Milton. 1988. "베트남 민족해방운동과 통일전선". 박헌채·김홍명 편역. 『통일전선과 민주혁명 I』. 서울: 사계절.
- Scigliano, Robert. 1960. "Political Parties in South Vietnam Under the Republic". *Pacific Affairs*, Vol. 33, No.4.
- \_\_\_\_\_. 1964. *South Vietnam: Nation under Stress*. Boston: Houghton Mifflin.
- Smith, Ralph. 1968. *Vietnam and the West*.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The Times of Vietnam*. 1956. "The End of Feudality". 7월 14일.
- Therborn, Goran. 1997. 최종렬 역. 『권력의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의 권력』. 서울: 백의.
- Tilly, Charles. 2000. 윤승준 역. 『유럽혁명 1492-1992: 지배와 정복의 역사』. 서울: 새물결.

- Tran Nam Tien. 2001. *100 Su kien lich su Sai Gon-thanh pho Ho Chi Minh trong the ky 20*. H.C.M: Tre(20세기 사이곤-호찌민시의 100가지 역사적 사건).
- Tuchman, Barbara, W. 1997. 조민·조석현 역. 『독선과 아집의 역사』. 서울: 자작나무.
- Wallerstein, Immanuel. 1999. 나종일 외 역. 『근대세계체제 1』. 까치.
- Willians, William Appleman. etc. ed. 1985. *America in Vietnam: A Documentary History*. New York: Anchor Book.

## Abstract

#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Ngo Dinh Diem's Ruling Ideology in Republic of Vietnam

Yoon Chung Ro

(Lecturer, Dongguk University)

In general, Diem's ruling ideology was a combination of anti-Colonialism, anti-Feudalism, and anti-Communism. However, anti-Communism prescribed the general direction and structure of Diem's ruling ideology.

In the early periods of the regime, the emphasis of anti-Colonialism and anti-Feudalism had a double objects to control the ruling strata and to justify its power to the ruled. At first, it seemed to be successful to obtain the goals, but it did not last long. Diem succeeded to destroy his political rivals by using anti-Feudalism, but failed to reform the land system which was the main target of social and economic anti-Feudalism. Diem's anti-Colonialism was in name only because its regime was born by and dependent on the United States.

Anti-Colonialism, anti-Feudalism were supposed to work as

sub-ideologies to conceal the violence of anti-Communism, but their function was limited. Because of the increasing people's opposition, Diem was forced to depend more and more on open violence in the name of anti-Communism. However, open violence did not much restrict that Diem's ruling ideology spreaded and permeated throughout the society just as it did not restrict Rhee regime's anti-Communism in south Korea.

The factors which restricted social spread and permeation of Diem's ruling ideology existed in other places. First, the French colonial central government, which connected the traditional society to Diem's regime, did not fully control local villages, and this limited the social spread and permeation of Diem's ruling ideology. Second, French defeat in the first Indochina War expanded the possibility for the left nationalists to mobilize the people. Third, social and cultural factors such as ethnicity and religion magnified the defects of Diem's ruling block and the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ural people.

\* Key word : Ngo Dinh Diem, Ruling Ideology, Anti-Colonialism,  
Anti-Feudalism, Anti-Communism